

개도국 인권담당들 “광주서 많이 배워 갑니다”

11개국, 인권위 연수 참가 오월 정선 ‘인권도시’ 추진 감명 광주 사례 자국에 반영 계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정책 발전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1명이 ‘인권도시 광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6일 광주시를 찾았다.

교육생들은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 총장인 히란미야 바리이, 콜롬비아 대통령 인권자문실 자문관 케틀라이나 곤잘레스를 비롯한 파키스탄, 베트남, 이라크

등 11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법무부처 관료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3층 협업회의실에서 인권도시 추진 배경, 광주인권현장과 현장의 실천적 도구인 인권지표, 인권올부즈맨 운영 등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인권마을 만들기, 인권단체 협력사업 등 인권문화 확산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생들은 “1980년 5월 당시 불의에 저항하고 광주시민이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헌혈하며 서로를 지켰던 민주주의의 나눔·연대의 공동체정신을 인권의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도시의 정체성으로 승화하고자 인권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광주’ 이름으로 아시아 저개발국에 의료 나눔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네 팔의 광주진료소 운영, 네팔 지진 등 아시아 지역 재해 발생 시 광주아시아나항공의 회를 통한 의료 지원과 긴급구호단 파견 활동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7일에는 5·18국립묘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양 소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민주주의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수립·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수 과정을 마련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교육생들은 자국의 인권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총장이나 인권자문관 등 국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급 공무원이다”며 “광주시의 인권도시 추진 사례를 참고해 자국에서 행정에 인권을 접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에 117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법무부·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부지 무상양여를 협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기 아끼는 가벼운 옷차림” 광주시, 기관 등 동참 유도 전력피크 8월 휴가 권장도

광주시는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와 전기 부족 사태 예방을 위해 노타이 및 회의중상의 재킷 탈의, 전력피크 시기 하계휴가 가기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먼저 13일 주요 실·과와 자치구, 유관기관 에너지 관계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에너지절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야구장, 지하철역사, 터미널을 중심으로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에너지시민연대 에코바이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이 생활에서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자치구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에너지지킴이를 조직, 지역별 에너지절약 활동을 강화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과 상가를 대상으로 건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공공기관은 청사 내 실내 냉방온도를 섭씨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8월 둘째 주부터 다섯 째주 사이에 하계휴가를 권장해 가정과 서비스 분야의 냉방수요를 최대한 분산하며, 여름철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노타이 및 회의중상의 재킷 탈의를 우선 실천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현재 전력사용 피크시간은 오후 2~3시이며, 전력 공급 예비율은 18.4%로 전력공급에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면 전력 공급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 3개 기관은 지난 5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시 제공>

“사회적경제 공동체 키우자” 3개 기관 협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사회적경제센터·협동조합 살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 3개 기관이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5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의 광주 실현, 5차 의제(2017~2021)의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 및 실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에 관한 공동 노력 및 발전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광주공동체를 위한 다섯번째 의제를 수립하고,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광주 소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CEO 포럼을 열어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도 협의 참여가 절실해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업무협약 이후 이어진 사회적경제 간담회에는 30여개 광주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병만 상임회장(광주대 교수)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방 실천에서 광주의 중요성을, 다음 발제에서 신석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실천사업 현황 등을 각각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그린카전시회 첫날, 천만 달러 수출 계약

대경에이티, 中 업체와 체결

2017 국제그린카전시회&로봇산업전 개막식과 함께 대규모 수출계약과 교류협력 MOU가 체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지역 대표 자동차부품 기업인 대경에이티가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인 대경에이티가 중국의 에프터마켓 제품 판매회사인 유허산업(YUEHUANG Industrial)에 3년간 자동차부품 10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대경에이티는 정밀 프레스 및 정밀 사출 금형제작, 전기전자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설계에서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유허산업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및 용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 마케팅하는 전문 회사로, 연간 50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의 20만개 매장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의 애프

터마켓 제품을 판매해 연간 2000만 달러까지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 기업이다.

또 인도자동차부품협회가 지역 기업들과 기술 및 정보 공유를 위한 MOU도 체결했다. 광주에프터마켓협회, 광주그린카진흥원, 인도자동차부품협회, 한인도비즈니스센터(KIBC) 등 4자간 MOU 체결을 통해 광주와 인도 간 기술협력과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가 공들여 왔던 인도 마힌드라와의 투자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그린카진흥원, KOTRA,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2017 국제그린카전시회&국제로봇산업전’은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일간 4차 산업혁명 이끌 자동차와 로봇의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6개월간 하루 2건씩 화재 발생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는 하루에 2.7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총 500건의 화재가 발생해 17명의 인명피해와 18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2건에 비해 7.75%(42건) 감소한 것이다.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원인별로는 부주의 64.8%(324건), 전기적요인 15.8%(79건), 원인 미상 7.6%(38건), 기계적요인 6.4%(32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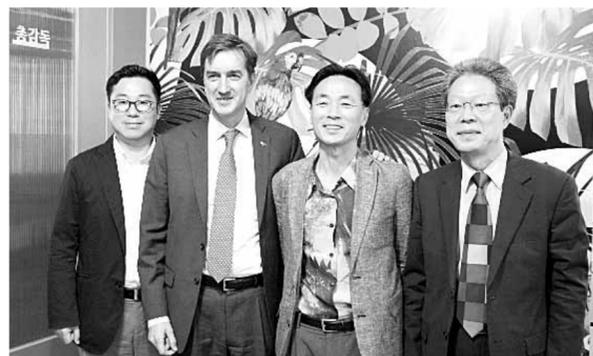
부주의 화재는 유형별로 보면 담배꽂초 방치가 38.6%(125건)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16.3%(53건), 음식물 조리

중 13.3%(43건), 불씨 방치 11.7%(38건) 순이다.

화재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이 36.4%(182건)로 가장 많고, 주거시설 26%(130건), 기타 18.4%(92건), 임야 10%(50건), 차량 9.2%(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5%(23건) 감소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주택차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주택화재 예방 홍보 활동, 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주한 덴마크 대사, 디자인비엔날레 협력 다짐 (좌)광주디자인센터는 6일 오전 토마스 리만(Thomas Lehmann·왼쪽에서 두번째) 주한 덴마크 대사, 정동은 광주시 국제관계대사, 박유복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리만 대사는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 및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등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 제공>

“급 매”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